



### 주일낮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1부 09:30  
2부 11:30

인도 : 1부 이종백 목사  
2부 홍순진 목사

- \* 전주 | 반주자
- \* 예배의 부름 | 시편63:3 | 인도자
- \* 개회송 | 찬양대
- \* 예배기도 | 인도자
- \* 찬송 | 2장 | 다함께
- \* 성서교육 | 84(히브리서 11장) | 다함께
- \* 사도신경 | 다함께
- 영광송 | 249장 | 다함께
- 중보기도 | 1부: 남시권 집사  
2부: 김희동 장로
- 응답송 | 찬양대
- 오늘의 말씀 | 요한복음3:16~21 (산약p. 146) | 인도자
- 찬양 | 1부: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 중등부  
2부: 다 찬양하여라! | 할렐루야 찬양대
- 설교 | 구원의 영광 | 박장덕 목사
- 설교후 기도 | 설교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찬송 | 주는 완전합니다 | 다함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 \* 봉헌 및 찬송 | 주님 감사해요 | 다함께
- \* 봉헌기도 | 박장덕 목사
- 교회소식 | 박장덕 목사
- \* 찬양 | 송축해 내 영혼, 부르신 곳에서 | 다함께
- \* 축복기도 | 박장덕 목사
- 후주 | 찬양대

© 다음주 기도 : I부 : 김영민 집사 II부 : 박무주 장로



### 찬양예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 150:6)

(경안여고 학원 선교 보고)

15:00

인도 : 백서영(2학년)

- 찬양 | 다함께 | 찬을부
- 기도 | 박미성(2학년)
- 교회소식 | 인도자
- 인사 | 이향숙 교장
- 성경봉독 | 사도행전1:8 | 이하령(2학년)
- 특송 | 경안여고 학생들(1, 2학년)
- 설교 | 내 증인이 되리라 | 이종백 목사
- 설교후 기도 | 설교자
- 찬양 | 다함께 | 찬을부
- 축복기도 | 이종백 목사

◎ 다음주 기도 : 남순명 권사

#### 수요기도회

19:00

인도 : 박장덕 목사

- 찬송 | 다함께 | 온누리 찬양단
- 기도 | 박연주 집사
- 찬양 | 4샘(새늘샘)
- 교회소식 | 인도자
- 성경봉독 | 마가복음16:9~18 | 인도자
- 설교 | 기적 | 박장덕 목사
- 기도 | 다함께

◎ 다음주 기도 : 이진영 집사

찬양 : 5샘(고운샘)

#### 가정예배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찬송	413장	70장	337장	86장	338장	395장
말씀	욥3:1-26	욥4:1-21	욥5:1-27	욥6:1-30	욥7:1-21	욥8:1-22



### 지난 주일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본문 : 신명기21:1~9

제목 : 사죄지은(赦罪之恩)

죄를 짓기는 정말 쉽습니다. 죄짓는 일이 가장 쉽습니다. 죄의 본성, 원죄 때문에 죄를 짓기가 가장 쉽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일이 너무 쉽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가장 편합니다. 배웁니다. 신속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일보다 더 쉬운 일이 있습니다. 죄짓는 것보다 더 편하고 더 자연스럽고 더 쉬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 용서받는 일입니다. 죄 용서받는 일이 가장 쉽습니다. 죄짓는 일보다 더 빠르고 신속한 것이 죄 용서받는 일입니다. 왜요? 용서받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다.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용서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지을 죄까지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고 용서받고 있고 또 용서받습니다. 죄는 정말 쉽게 가장 쉽게 용서를 받는데 문제는 죄책감입니다. 가장 씻어내기 어려운 것이, 없애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죄책감입니다. 죄를 참 쉽게 짓지만 그러나 죄책감을 느끼고 사는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없이 죄를 짓는 일은 참 쉽기에 용서받는 일도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죄는 쉽게 용서받지만 내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죄책감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받았다고 해도 쉽게 와 닿지 않습니다. 잠깐이라도 죄의 앙금, 찌꺼기가 남아 있어요. 이게 못살게 굴고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바로 이 죄책감 때문에 죄를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죄 용서와 죄책감을 씻는 내용입니다. 들뢰브 피 흘린 시체를 발견했어요 누가 죽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럴 때, 먼저 시체가 있는 곳으로부터 거리를 잴니다. 제일 가까운 성읍이 어디냐? 그 성읍의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모입니다. 그리고는 한 번도 멩을 때어 보지 않은 암송아지를 고릅니다. 그 송아지를 깊은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 부릅니다.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입니다. 그런 다음,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습니다. 암송아지에게 살인자의 죄를 대신 뒤 집어씌웁니다. 죄의 책임을 송아지에게 전가, 떠넘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했습니까. 주님, 주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들에 앞드러진 피 흘린 시체, 누가 죽였는지 도통 모릅니다. 누가 죽였는지는 분명 모르지만, 어쨌든 죽였습니다. 그 누군가가 죽였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피 흘린 죄, 살인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의 책임을 모든 사람이 다 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죽이면서 암송아지에게 죄를 대신 떠넘깁니다. 뒤집어씌웁니다. 암송아지 역시 이름을 모르기에 내 이름일 수 있고, 너 이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에 앞드러진 시체가 됩니다. 이 무죄한 자의 피, 시체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죄의 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죄 없는 암송아지가 되어 그 죄값을 대신 치룹니다. 모든 사람이 용서받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 대가가 없어집니다. 가장 쉽게 용서받습니다. 들에서 피 흘리며 죽은 시체도 예수님을 상징, 그 죄값을 속하는 암송아지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중상징입니다. 들에서 죽은 시체를 통해서도 모두가 죄인인 것을 확인받고, 골짜기에서 죽은 암송아지를 통해서도 모두가 용서받습니다. 암송아지의 은혜입니다. 부부가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사는 것은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지 않으면 끝까지 함께 살아갈 수가 없죠. 직장을 용서했기 때문에 직장을 끝까지 다닐 수 있죠. 교회를 용서했기 때문에 끝까지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것은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이별하지 않은 것은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용서가 끝까지 함께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실과 피로 언제나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삽니다. 주님의 용서로 영원히 삽니다. 이처럼 복을 받은 자가 우리 말고 또 어디 있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복된 운명입니다. 주님의 실과 피에 참여하는 성찬식을 통해 이 복된 운명을 다시 확인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주간: 정동수 장로)

Table with 3 columns: 구분 (Division), 안 내 (Members), 봉 헌 (Offering). Rows include 1부, 2부, and 차량안내.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기관

- List of supported churches and organizations: 사타자교회, 등가문교회, 등소하교회, 하얼빈교회, 삼차자교회, 철령방주교회, 둔화교회, YMCA, YWCA, C.C.C, etc.

예배모임 안내

Table of church services: 주일낮예배, 찬양예배,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오시는 길



경북 안동시 관청골길 67 (옥동)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 Staff list: 원로목사 박종석, 부목사 이종백, 교육목사 김영숙, 원로장로 권영만, 은퇴장로 김부진, 시무장로 박무준, 지휘 오트간, 담임목사 박장덕, 교육전도사 권엘림, etc.

- Church news items: 환 영 \*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목사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etc.

교인동정

Table of church members: 번호, 이름, 주소, 생, 기관, 인도자. Lists names and addresses of members.

건축헌금 계좌: 농협 707059-51-022680 (대한예수교장로회도원교회)
십일조, 감사헌금 계좌: 농협 707015-51-044866 (대한예수교장로회도원교회)

지난주 봉헌

- News items: 실 일 조: 강계원 강인숙 구민우 김금옥 권오현 권인철 권영욱 권중규 강경선 김경환 김말숙 김명선 김민지 김봉학 김성진 김수범 김승열 김영란 김영환 김은환 김유용 김인심 김경옥 김향희 김주희 김화중 김희동 노이영 마호인 박무주 박상용 박성진 배난영 배종희 배후남 변인화 서상교 심동환 심순옥 신노균 신현순 안상용 안소영 안연호 오순희 오태희 이 정 이기자 임정재 이순득 이춘원 이종기 임규선 임석연 임은진 임태숙 장보람 장정순 정석진 정유진 정주영 조영숙 조영순 전기환 최재경 최래규 최현나 허영철 황태순 황현석
감 사: 강도순 강순교 강상규 강주희 공태용 구기봉 권기환 권영욱 권혜숙 김가운 김나영 김수범 김옥분 김은환 김재연 강정숙 강향희 김재규 김주희 김향희 김진희 김희경 김화중 남희영 민기식 민요한 민창계 박유분 변인화 서상교 석희란 손소희 송영희 신동훈 신현순 안상용 이기자 이상직 이춘선 이현심 이현수 장시자 정문호 정석진 정수진 조이영 조영애 최은영 최래규 황현석 어울림새시경 1여전도회 안동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무명명
생일감사: 강준자 강경선 김순영 박혜선 임태숙 주정봉헌: 221명 물질봉헌: 660구좌
건 축: 강도순 권기환 권영욱 김 경 김경일 김수범 김수현 김이현 김예은 김원규 김인심 김경희 김재규 김종민 김형규 김희자 류명희 박분순 박상용 박지우 손재원 안경실 안경준 안상택 이 정 이기은 이기자 이상원 장시자 정석진 최재훈 최현나 허우재 황정원 황현석 1부여전도회



2023 표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

대한예수교장로회
도원교회

36663 경북 안동시 관청골길 67(옥동)
TEL. 054) 852-5041 / 841-7227
FAX. 054) 852-1307
www.dowonch.com

